

첫대면 대화에서의 침묵극복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인 상급일본어학습자의 대화운영방법을 중심으로-

이 선 옥**

(e-mail : somildso@naver.com)

<목 차>

- | | |
|-----------|-------------------|
| 1. 들어가기 | 4. 결과 및 고찰 |
| 2. 선행연구 | 4.1 명확화요구와 평가표현 |
| 3. 연구방법 | 4.2 확인요구와 의견 덧붙이기 |
| 3.1. 분석자료 | 4.3 정보추가와 재질문 |
| 3.2. 분석방법 | 4.4 자기개시와 정보제공 |
| | 5. 마무리 |

キーワード : 沈黙(silence)、初対面会話(first conversation)、話題(topic)、性差(gender)、
会話運営(conversation management)

1. 들어가기

침묵은 대인 의사소통에서 자주 발생하며 필수적인 부분이다(Myers1995:292). 침묵도 의사소통의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의 침묵은 곤혹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Myers1995:292). 침묵이 발생했을 때 곤란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중 하나는 첫 대면 대화 장면일 것이다. 첫 대면 대화 장면 중에서도 문화가 다른 외국인과의 첫 대면 대화에서 발생하는 침묵에서 학습자는 모어화자와의 대화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까? 본고는 이와 같은 의문으로 접근

* “이 연구성과는 2018년도 BK21플러스 고려대학교 중일 언어·문화 교육·연구 사업단의 참여학생으로서 작성한 것임.”

**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일본어학·교육전공 박사과정

장면에서의 첫 대면대화에서 발생하는 침묵에서 학습자의 대화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필자가 학습자의 대화 운영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은 접촉 장면에서의 첫 대면 대화에서 모어화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모어화자가 아닌 상급 일본어 학습자의 대화진행을 통해 학습자 입장에서 도입할 수 있는 대화운영 방식 즉 침묵 후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고는 대화 중 침묵현상을 접촉 장면의 첫 대면 대화라는 상황에서는 극복해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침묵의 범위에 관한 연구는 Clark(1996), 堀(2011)등이 있고 침묵의 의미에 관한 연구는 森本(2013)가 있다. Clark(1996:268)는 영어권 화자의 대화를 연구하여 ‘1초의 한계’라는 말을 사용해 침묵의 범위를 설명하였다. ‘1초의 한계’란 영어권에서의 화자는 침묵이 발생하면 1초 이내에 이야기를 계속하거나, 머뭇거리는 표현(言い淀み・フィラー)을 말하거나 하여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뜻이다. 堀(2011)는 일본어모어화자 끼리의 대화를 연구하여 침묵의 범위를 2초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대학생 4학년(18명)의 첫 대면 대화를 남성끼리의 조합, 여성끼리의 조합, 남녀조합으로 수집하여 침묵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일반인 5명에게 첫 대면 대화 녹음자료를 들려주고 침묵이라고 여겨지는 곳을 확인받았다. 이 후 침묵을 “발언권을 가진 사람이 없고 소리가 없는 2초 이상의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침묵의 의미에 관해 연구한 森本(2013)는 대화 중에 발생하는 ‘間’와 ‘침묵’에 대해 설명하였다. ‘間’와 ‘침묵’은 무음구간을 가리키는 공통점이 있지만 ‘間’는 그 길이와 타이밍 등이 ‘매우 좋다’, ‘적절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하였고 ‘침묵’은 이러한 평가적 관점은 없지만 대화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일상대화에서 ‘침묵’이 발생하면 화자가 발언하는데 어떤 문제나 곤란한 점이 생긴 것을 뜻하는지, 단순히 발화와 발화 사이에 무음구간이 생긴 것인지, 대화가 중단된 것인지를 대화참가자들이 침묵이 생긴 시점 등을 이해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한다고 하였다.

상기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침묵의 범위는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또한 침묵의 의미는 침묵이 생긴 시점과 대화참여자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다. 선행연구 중에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침묵을 극복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대화 운영 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으며 상기 선행연구와 같이 침묵의 정의와 의미에 관한 연구를 찾을 수 있었다. 본고는 첫 대면 대화 중에서도 국적과 성별이 다른 접촉장면에서의 이성간의 대화라는 특수한 장면에서 행해지는 첫 대면 대화를 대상으로 연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는 침묵의 의미는 첫 대면 대화의 어색함을 가중시키는 것, 곤란함을 주는 것 즉 극복의 대상이라는 입장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으로 기존 연구에서 그다지 다루지 않았던 침묵 후 학습자가 대화를 운영해 가는 방식 즉 침묵 극복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인 학습자의 침묵 후 대화운영방식에 성차가 있는지도 살펴본다.

3. 연구방법

3.1. 분석자료

피험자는 일본어 능력이 상급인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와 일본어 모어화자로 한국의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남녀이다. 한국인여성(학습자:KF)과 일본인남성(JM), 한국인남성(학습자:KM)과 일본인여성(JF)의 조합으로 첫 대면 대화(35분)를 녹음하여 녹음 된 자료를 문자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인 학습자는 ‘일본어전공 통·번역대학원생, 일본대학 졸업자, 일본유학경험이 있는 자’ 등 일본어로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상급일본어학습자로 한정하여 모집하였다.

한국에 유학 오는 일본인 유학생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므로¹⁾ 일본어 학습자는 유학생의 입장에 속하는 일본어 모어화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였다. 이에 일본어 모어화자의 경우, 한국으로 유학을 온 ‘교환유학생, 정규대학생, 한국 대학 편입학생, 대학원생’을 주로 모집하였다. 본 연구의 피험자는 모두 20대 라는 같은 연령대에 속하며, 첫 대면 중에서도 접촉 장면의 이성간의 대화라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연상이

1)교육부 국제교육협력부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보고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 유학중인 일본인 유학생은 2016이후 증가추세에 있다(이선옥2018:144-145).

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령보다는 대화운영방식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7년 6월 24일부터 8월31일까지이며, 본고의 연구대상자는 14명(7페어)이다. 7페어 각 35분간의 대화 총245분이 분석의 대상이다. 대화자료 A, B, C, D는 한국인 여성과 일본인 남성의 조합이고, 대화자료 E, F, G는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여성의 조합이다. 피험자 정보는 <표1>과 같다.

<표1> 피험자 정보

대화 자료	화자	성별	국적	연령	직업	대화 자료	화자	성별	국적	연령	직업
A(01)	KF01	女	韓國	26	大学院生	E(05)	JF05	女	日本	25	大学院生
	JM01	男	日本	24	アイドル練習生		KM05	男	韓國	29	大学院生
B(02)	KF02	女	韓國	28	大学生生	F(06)	JF06	女	日本	25	大学生
	JM02	男	日本	24	大学生		KM06	男	韓國	28	大学院生
C(03)	KF03	女	韓國	29	大学院生	G(07)	JF07	女	日本	24	大学生
	JM03	男	日本	21	留學生		KM07	男	韓國	29	大学院生
D(04)	KF04	女	韓國	29	大学生						
	JM04	男	日本	22	留學生						

3.2. 분석방법

본고에서의 침묵의 정의는 堀(2011:107)에 따른다. 堀(2011:107)는 “발언권을 지닌 사람이 없고, 소리가 없는 시간이 2초 이상인 것”을 침묵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본고의 분석대상은 다음의 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 1) 침묵 시간이 2초 이상인 경우
- 2) 침묵 후, 직전의 화제와 경계가 분명하고 새로운 화제가 제시된 경우
- 3) 침묵 후 제시된 화제로 대화의 주고받음(やり取り)이 이어져 화제②가 확정된 경우

녹음한 자료는 曹英南(2013)의 문자화 규칙에 따랐으며 분석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2>는 한국인 여성학습자와 일본인 남성의 첫 대면 대화의 일부분이다. 발화번호 54, 56, 69, 70에서 침묵현상이 관찰되지만 본고에서는 발화번호 54, 70과 같이 질문에 대한 응답 또는 호응하기 전 나타난 침묵은(숨을 고르거나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2) 화제란 “내용적 연속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공통개념으로 대화가 진행되며, 응답과 맞장구를 포함한 대화의 주고받음(やり取り)이 많은 대화(최소 2회 이상)”라는 이선옥(2016:57)의 화제 정의에 따른다.

발화번호 56, 69와 같이 앞선 화제와의 경계가 분명하고 침묵시간이 2초 이상인 경우의 학습자의 발화에 주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발화번호56의 경우 6초간의 침묵이 생기자 한국인 여성(KF03)은 “じゃ、なんか日本に帰られーるのは楽しみにしているんじゃないですか。”라고 귀국에 관한 질문으로 화제를 제시하였다. 이 화제로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한국인 여성(KF03)은 발화번호59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명확하게 질문을 부연하고 있다(이하 명확화요구로 명명함). 한국인 학습자의 명확화 요구에 일본인 남성(JM03)은 발화번호61과 같이 한국 음식의 매운 맛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말하며 말의 주고받음이 이어진다.

이와 같이 침묵 후 학습자가 침묵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화제를 제시하였는지(질문인지 자기개시인지), 어떻게 대화를 운영해 가는지(구체적인 대화 운영방법)에 초점을 맞춰 정성적 분석을 시도한다. 즉 침묵 후 학습자가 제시한 화제로 상대방과 대화의 주고받음(やりとり)이 이어져 화제가 확정된 경우를 침묵현상이 극복된 것으로 판단하며 본고는 모어화자가 아닌 학습자가 침묵 후 대화를 운영해 가는 방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접촉장면에서는 모어화자가 언어주체(言語ホスト)로서 대화를 운영해 가는 측면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급 일본어학습자의 경우 모어화자만큼 대화를 운영해가는 학습자 나름의 방법을 살펴보는 것도 일본어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표2> 분석의 예시 : 자료C(03)

発話番号	発話者	会話内容	備考	学習者の発話分析
53	KF03	あ、3年生、あ~若いですね。(笑い)		
54	JM03	(沈黙3秒) みんなだいたい最初に会った人たちは／僕のこと見てふけてるってとし[はにてるようにみて／(笑い)		
55	KF03	☆はい ☆[えー ☆あ、そうなんですか。		
56	KF03	(沈黙6秒) じゃ、なんか日本に帰られーるのは楽しみにしているんじゃないですか。／###		<u>質問</u>
57	JM03	やー、全然もちょっと韓国にいたい／ぐらい		
58	KF03	☆あ~		
59	KF03	なんか私の友達なんかはけっこう韓国で／ちょっと食べ物にちょっと苦労してる[のをみてたので		<u>明確化要求</u>
60	JM03	☆うんー ☆うん~~		
61	JM03	日本はあんまり辛い物を食べないので／苦労することが多いと思いますけど僕はお母さんが／辛い物が好きだったので／お母さんが作る料理がいつも辛い料理		

		だったので／それに慣れて／韓国の料理は全部／おいしいです。		
		<中略>		
69	KF03	そうですね。(笑い) (沈黙3秒) ここで友達をたくさん作れましたか。		質問
70	JM03	(沈黙3秒) うんー韓国人の友達もできましたけど／外国人の友達も／いっぱいできました。語学堂に外国人がいっぱいいる／いるのでそこで一緒に授業韓国の授業を受けて友達になりました。	5分	
71	KF03	☆はい ☆はい ☆あ～そうですね。 ☆あ		
		<中略>		
79	KM03	☆あ～		

4. 결과 및 고찰

첫 대면 대화 중 침묵이 발생하면 새로운 화제가 제시되어도 <표3>과 같이 やりとり가 활발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대화가 중단되어 버리는 경우가 다수 관찰된다. 하지만 이와 달리 침묵 후 화제가 확정되고 말의 주고받음(やりとり)이 여러 차례 오고간 대화 장면도 관찰되었다. 이에 본고는 후자에 주목하여 학습자가 대화를 어떻게 운영해 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3> 침묵 후 화제가 발전하지 못한 대화의 예:자료D(04)

発話番号	発話者	会話内容	備考
36	KF04	(沈黙3秒) 今～私は4年生(笑い) 日本での大学院の進学、考えてますけど～今何年生?	
37	JM04	今、3年生です。	
38	KF04	あ、3年生?	
39	JM04	はい	

학습자의 대화 운영 방식은 첫 대면 대화에서 침묵이 발생했을 때 침묵을 극복하여 대화를 진행시킨 하나의 방안으로 판단되기에 침묵 후 やりとり가 활발하게 진행된 대화의 각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침묵 극복 방법을 확인하였다. 본절의 서술 방법은 우선 침묵 후 대화에서 처음 확인되는 대화 운영방식을 소재목으로 설정하여 설명한다. 이후, 한번 등장한 대화 운영방식은 소재목에는 명기하지 않고 대화운영순서표를 통해 기술하는 형식으로 설명한다. <표4>는 본고의 각 대화 자료에서 확인된 침묵의 횟수와 침묵 시간을 정리한 표이다.

<표4> 침묵횟수와 침묵시간

침묵 시간	자료A	자료B	자료C	자료D	자료E	자료F	자료G
2초	3회	2회	1회	.	1회	.	1회
3초	.	.	3회	2회*	.	.	3회
4초	1회*	2회	1회*	.	1회*	.	1회
5초	.	.	1회	.	.	.	2회*
6초	.	.	2회**	.	1회	.	3회
7초
8초
9초	.	.	1회*	.	.	.	2회
10초
11초	.	.	2회
12초
13초
14초	1회
침묵횟수	4회	4회	11회	2회	3회	0회	13회

* : 본고의 분석 자료로 사용한 ㄱ(가)가 활발한 대화자료 중 하나임을 뜻함.

4.1. 명확화요구와 평가표현(明確化要求、評価表現)

대화1은 한국인여성(KF01)과 일본인 남성(JM01)의 대화이다. 발화번호168에서 침묵4초가 발생하였다. 침묵 4초는 본고의 침묵범위에 해당되며 한국인여성(KF01)의 “どうしよう”라는 발화에서 알 수 있듯이 침묵이 생긴 것을 곤란해 하는 발화로 추측되며, 이전 화제와 전혀 새로운 화제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침묵 후의 발화로 분석의 대상에 해당된다.

발화번호 168에서 한국인 여성(KF01)은 상대방에게 ‘연구참여’에 대한 화제를 질문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연구참여에 관한 화제로 대화가 그 이상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화번호174와 같이 “じゃ、今Aさんは専攻、なん、D大学での専攻は一応”라고 일본인 남성(JM01)의 ‘학부 전공’에 대해 질문으로 화제를 제시하였다. 침묵 후 학습자(KF01)는 질문으로 화제를 제시하였고 질문의 종류 중에서도 말끝을 흐리는 말끝흐림(중도종료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맞장구(相槌)가 주가 되어 대화를 몇 회 주고받은 후 한국인여성(KF01)은 일본인남성(JM01)의 연령을 언급하며 ‘연령’에 관한 자신의 의견 즉 일본나이로 22세는 젊다는 발화를 다른 발화보다 길게 서술하고 마지막에 “やっぱりAさんは将来、韓国で就職したいんですか”라고 질문으로 일본인남성(JM01)에게 화제를 제시하였다(발화번호179). 일본인남성(JM01)은 “えと、あの(笑い)、(沈黙2秒) 今...”의 발화에서 알 수 있듯이 주저하면서 또는 고민하면서 “なんか練習生を今

ちょっとやあって…”라고 아이돌 연습생을 하고 있다는 개인정보를 개시하였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국인여성(KF01)은 “えっ?、本当?、あー”와 같이 맞장구(발화번호182)로 반응하며 “じゃ、何の分野の?”라고 명확화요구를 통해 일본인 남성(JM01)의 발화를 끌어내고 있다(발화번호183).

상기 대화를 통해 맞장구, 명확화요구는 상대방의 발화를 유도하고 말의 주고받음을 활발하게 해주는 방아쇠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여성(KF01)이 사용한 명확화요구란 화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발화를 한번 더 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村上1997:150) 상대방(청자)의 대화를 지원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화자의 명확화요구를 청자가 조력하는 행위(화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에 의해 화제는 확정될 수 있음(박성현2008:162)을 대화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명확화요구와 더불어 평가(감정)표현도 말의 주고받음을 활발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임을 발화번호187, 19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여성(KF01)은 발화번호187과 같이 “何で、言ってくれなかったんですか。それ自己紹介に…”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고, 발화번호191과 같이 “えー、すごい”라고 평가표현을 사용한 발화를 하였다. 평가(감정)표현이란 대화참가자가 화제내용과 정보에 대해 형용사, 형용동사, 부사, 동사 등을 이용해, 스스로의 의견·감정(선악, 좋고 싫음, 가치, 희노애락)을 나타내는 표현이다(中井2012:133). 평가표현이 청자의 발화를 끌어낸 것처럼 일본인남성(JM01)은 발화번호192와 같이 겸손의 발화를 하였고 “あの留学中に、あの、オーディション受けて、それで (발화번호194)”와 같이 자기개시 하여 말의 주고받음이 그 이후에도 여러차례 이어졌다.

[대화1] 침묵 후의 대화 : 자료번호A(01)

発話番号	発話者	会話内容	備考	学習者の発話分析
165	KF01	でも、今、Aさんはなれてー/るんですね。	A: 男性の名前	
166	JM01	☆もうなれ # # #	###:聞き取り不明を意味する	
167	KF01	はい。		
168	KF01	(沈黙4秒)どうしよう。/ <u>こん、始めてだって、Aさんも? [(笑い)]</u>	15分20秒	質問
169	J M01	☆(笑い) ☆はい ★(笑い)		
170	KF01	私も始めて、私はあの大学院の # # # の仲間っていうか同期の何か誘いで、[じゃ私が # # # しますって]って、		

		そのこの場に出たんですけど、Aさんはどの流れで		
171	J M01	★あー。		
172	J M01	何かそのD大学であの、(沈黙2秒)あの、仲よくなった子が、日本、日本語学科の[子で、その(沈黙2秒)人の知り合いに/が、たん、[何か[# # #と思うんですけど、	D:大学名	
173	KF01	★うんうん。 ☆が、先の? ★# # # ★あーあーあー。		
174	KF01	じゃ、今Aさんは韓国が、あの専攻、なん、D大学での専攻は[一応		質問
175	J M01	★は、あの、自由専攻[ですか、だったんで、(沈黙2秒)何かいろいろ(沈黙2秒)あまり何か専攻はなくて		
176	KF01	★あーあーあー、あ、あ		
177	KF01	うんうんうん。ありますね。[はい。		相槌
178	JM01	★はい。		
179	KF01	22才?/はあー、若いですね。/いや、これから/何もできます。/どれでも、はい。なんか、この年になると、まあ、26才も[あまりにも若いですけど、感じるのが、でも、一オ一オがだいせつ[になるっていう、何か就職とかバイトでもやっぱり若い人が、好まれます。やっぱりそういうけいこう (傾向) [があります。やっぱりAさんは将来、韓国で就職したいんですか。	16分20秒	質問
180	JM01	☆はい。☆えー。☆ (笑いーへへへ)☆いや(笑いながら) ★(笑い) ★若い# # # (笑いながら) ★あー ★はいはい。		
181	JM01	えと、あの(笑い)、(沈黙2秒)/[# # #と今、えつ、な、何か、何ですか、何か練習生を今ちよつとやってて、/韓国で、[それで今来てて/		
182	KF01	☆まだ ★そこまでは? ☆えっ? ★本当? ☆あー。		相槌
183	KF01	じゃ、何の分野の?		明確化要求
184	JM01	えと、歌手の...		
185	KF01	えー? 本当に?		相槌
186	JM01	はい。で、でも、あの...		
187	KF01	何で言ってくれ、言ってくれなかったんですか。[それ自己紹介に...(笑いながら)		評価表現
188	JM01	★(笑い)		
189	KF01	あ、そうですか。		相槌
190	JM01	はい。[で、		
191	KF01	★えー、すごい。		評価表現
192	JM01	でも、あの、そんな大きい会社じゃないですよ。		
193	KF01	いやいやいやいや。		相槌
194	JM01	いや、ぜん...(笑い)、で、あの留学中に、あの、オ、オーディション受けて、[それで、 <div style="text-align: center;"><中略></div>		
243	JM01	あさってですね。(笑い)		

대화1에서 화자가 질문으로 화제를 제시하고 청자는 자기개시로 그 화제를 이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화자는 명확화요구, 맞장구, 평가표현을 사용하여 청자의 발화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화2 역시 침묵 후 학습자는 질문과 명확화요구, 평가표현으로 청자의 발화를 유도한 사례이다. 침묵이 발생하자 침묵6초 후 발화를 시작한 것은 한국인 여성학습자(KF03)였다. 발화번호56과 같이 한국인여성(KF03)은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느낌을 일본인 남성(JM03)에게 질문하며 대화를 시도하였다. 한국에 더 있고 싶다는 JM03의 발화에 KF03은 한국음식이 맞지 않아 고생한 친구의 이야기를 꺼내며 한국에 있고 싶다는 JM03의 발화에 대한 설명을 바라는 듯한 발화를 시도하였다(발화번호59). 이후 JM03의 긴 설명이 이어졌고 KF03은 발화번호63과 같이 평가표현을 사용해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반응을 보이며 대화가 이어졌다.

[대화2] 침묵 후의 대화 : 자료C(03)

発話番号	発話者	会話内容	備考	学習者の発話分析
56	KF03	(沈黙6秒) <u>じゃ、なんか日本に帰られーるのは楽しみにしているんじゃないですか。 / # # #</u>	### :聞き取り不明	質問
57	JM03	やー、全然もうちょっと韓国にいたい / ぐらい		
58	KF03	☆あ～		
59	KF03	<u>なんか私の友達なんかはけっこう韓国で / ちょっと食べ物にちょっと苦労してる [のをみてたので]</u>		明確化要求
60	JM03	☆うんー ★うん～～		
61	JM03	日本はあんまり辛い物を食べないので / 苦労することが多いと思いますけど僕はお母さんが / 辛い物が好きだったので / お母さんが作る料理がいつも辛い料理だったので / それに慣れて / 韓国の料理は全部 / おいしいです。		
62	KF03	☆はい ☆はい ☆あ～ ☆あ～ ☆あ～ ☆はい		
63	KF03	よかったですね。		評価表現
		<中略>		
68	KF03	☆はい		

<학습자의 침묵 후 대화운영순서>
 대화1 : 질문→(맞장구)→**명확화요구**→(맞장구)→**평가표현** ...
 대화2 : 질문→**명확화요구**→**평가표현**
 *... : ... 이후 대화운영 생략이라는 뜻

4.2. 확인요구와 의견 덧붙이기 (確認要求、意見加え)

대화3은 한국인여성(KF03)이 6초 침묵 후, 일본인남성(JM03)에게 동아리 활동에 대한 화제를 질문형식으로 제시하는 장면이다(발화번호230). 한국인여성(KF03)이 일본인남성(JM03)의 발화가 애매하여 동아리 활동으로 유도과 궁도 모두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二つ?”(발화번호232)라고 ‘확인요구’하였다. 확인요구(확인체크)란 “화자(与え手)의 발화가 애매한 경우 청자(受け手)는 화자의 정보에 관해 자기 나름의 이해를 하고 나서 그것이 맞는지 어떤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柳田2015:64). 이에 일본인남성(JM03)은 “中学生のときに柔道やって、高校生のときに弓道やりました。”라고 답한 뒤 이야기가 중단되었다.

4초간의 침묵 후, 다시 한국인 여성이 말을 꺼냈다. 한국인여성(KF03)은 발화번호234에서 알 수 있듯이 “やってる人多いですか?”라고 한번 더 질문하고 이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弓道とか難しそうなんですけど”라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서 다시 궁도에 관한 화제로 대화를 시도하였다.

일본인남성(JM03)의 대답이 이어지고(발화번호235) 한국인여성(KF03)은 “かっこういいですね。(발화번호236)”라고 평가표현을 사용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또한, 한국인여성(KF03)은 청자의 발화에서 활의 명칭 등을 명확화요구를 통해(발화번호238) 침묵현상을 극복하였다.

[대화3] 침묵후의 대화 : 자료C(03)

発話番号	発話者	会話内容	備考	学習者の発話分析
229	JM03	(沈黙 4 秒)うーん、なんか中国人の友達と喋ったときにも、中国もそういうのがあって、朝から夜遅くまでずっと勉強してるって言ってました。だから中国人の友達もすぐ日本がうらやましいって。		
230	KF03	(沈黙 6 秒)なんか学生時代にクラブ活動とかやりましたか?	32分11秒	質問
231	JM03	柔道、柔道。あと弓道。		
232	KF03	二つ?		確認要求
233	JM03	中学生のときに柔道やって、高校生のときに弓道やりました。		
234	KF03	(沈黙 4 秒)やってる人多いですか? 弓道とか難しそうなんですけど。		質問+意見加え
235	JM03	あ、は少ないですけど、やっぱり野球とかサッカーとかバスケットボールが多いですけど、でもなんか、うーん、そういうあんまり簡単にできないスポーツをやってみたかったです。		

236	KF03	かっこいいですね (笑い)。		評価表現
237	JM03	武道が好きだったので、柔道やって、次、弓道やろうと思って。		
238	KF03	矢っていうんですか? / 矢がすごく大きいじゃない [ですか? はい。で、あれなんか重かったり。。。]		明確化要求
239	JM03	☆矢、はい。 ★あ、弓が?		
240	JM03	あれ、あれはでもそんなに重くないです。弓道はしっかりキレイな形で弓を引くと全然しんどくないスポーツで、アーチェリーとかはすごく力が要りますけど、弓道は全然もう、/キレイな体勢でやれば力は要らないです。		
		<中略>	35分で録音中断	

<학습자의 침묵 후 대화운영순서>	
대화3 : 질문→ 확인요구 → 질문+의견덧붙이기 →평가표현→ 명확화요구	

4.3. 정보추가와 재질문(情報の付け加え、再質問)

대화4는 한국인여성(KF04)이 침묵 3초 후, “韓国に来てまあ、大変なこととかあるんですか。まあ、これはやばいなと思ったことあるんですか。”라고 한국에서 겪은 힘든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으로 화제를 제시하는 장면이다(발화번호203). 청자인 일본인남성(JM04)은 “교환유학생이라서 고시원에 살고 있다”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자(발화번호204) 한국인여성(KF04)은 활발하게 맞장구를 쳤다(발화번호205). 이어서 한국인여성(KF04)은 고시원(또는 원룸)의 일본에서의 명칭 및 크기와 비용 등을 ‘명확화요구’ 방식으로 물으며 상대방의 발화를 유도하여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발화번호206).

또한 발화번호209와 같이 화자(KF04)는 ‘敷金’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덧붙여 화제를 전개하고 있다(이하, 필자는 ‘정보추가’라 칭함). ‘정보추가’도 화자와 청자가 침묵현상을 극복해 대화의 주고받음이 활발해지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발화번호211과 같이 한국인여성(KF04)은 “多分大丈夫だと思います。大丈夫。そういう話、私は聞いたことないですけど。”라고 평가표현(감정표현)을 사용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걱정하는 일본인남성(JM04)을 안심시키고 있다. 대화4와 같이 적절한 타이밍에 추가정보를 제공하면 청자의 발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발화번호209에서 한국인여성(KF04)이 “敷金”이라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였기에 이와 관련된 화제로 대화의 やりとり가 성립되었다.

[대화4] 침묵 후의 대화 : 자료D(04)

発話番号	発話者	会話内容	備考	学習者の発話分析
202	JM04	☆へえ。あんまりないです/日本料理に辛い物多分ほぼはないと思います。		
<u>203</u>	<u>KF04</u>	☆うん。うんー。(沈黙3秒)韓国に来てまあ、大変なこととか[あるんですか。まあ、これはやばいと思ったことあるんですか。]	19分26秒	質問
204	JM04	★大変なこと。とくにないんですけど/自分交換留学生でそんな長くないから/家を探すのが###/ワンルームに住めなかった/まあ、前期はコシウォンに、前期コシウォンに住んで/なんか狭くてなんか人と共同生活だし、ワンルームに住みたいと思って短期のやつを韓国人のヒョンと一緒に探したんですけど/なんかあまり短期の###がなくて/今もコシウォンに住んでいます/別の###引越して/より安い###どうせなら節約しようつということ/部屋が狭くて大変です。	### : 聞き取り不明	
205	KF04	☆うん。☆うん。☆あ、そうですね。☆うん、☆うん。☆あ。はい。☆うん、あ。☆あ、そうですか。☆あ、そうですか ☆うん。へえ		相槌
<u>206</u>	<u>KF04</u>	なんかD大近くのコシウォンってすごく高い感じなんですけど/まあ、日本のなんか、ワンルームっていいですか。日本の部屋と比べてまあ、安いほうですか。###まあ、それとも/Eから。	D:大学名 E:男性が住んでいる地域名	明確化要求
207	JM04	☆高いです。☆日本、日本実家に[住んでるからワンルームとかわかんないですけど[ワンルームは同じぐらいだと思います。		
208	KF04	★あ、そうですか。		相槌
<u>209</u>	<u>KF04</u>	あ、あ。うん。そうですか。でも、韓国はその、なんか、しきん?しきんっていうんじゃないんですけど/はい。それがめっちゃくちゃ高いから/まあ、それ、まあ。戻してくれるんですけど。でも、まあ、それでも高いって感じで。うん。	「しきん」は日本語で敷金を意味する	情報の付け加え
210	JM04	☆しようきんみたいな。☆高いです。心配じゃないですか。なんかもどってくれるかどうか/親がなんか心配してワンルーム###もし不動産がもし倒産したらどうする/みたいな、あんたが払うの、みたいな感じで (笑い) なんか/大丈夫 (笑い)		
<u>211</u>	<u>KF04</u>	☆あ~☆あ、☆多分大丈夫だと思います。はい。まあ、そうですね。大丈夫。そういう話、私は聞いたことないですけど。		評価表現
212	JM04	あ、保険とかあったり###。保証金もし。 <中略>		
224	JM04	☆へえ。安い。へえ。すごい (笑い) 全然違いますね (笑い) なんか		

대화5 역시 9초간의 침묵 후 학습자가 대화를 운영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여성학습자(KF03)은 대화에서 침묵이 발생하자 침묵9초 후 “じゃ、日本に帰られたら何年生ですか”라고 질문으로 화제를 제시하였다. 일본인남성(JM03)이 질문을 듣지 못해 다른 대답을 하였기 때문에 한국인여성(KF03)은 “ああ、何年生に?”라고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하여 대화를 유도하였다(발화번호51). 일본인 남성(JM03)의 대답에 KF03은 “3年生、若いですね”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학습자의 질문, 재질문, 평가표현이 일본어모어화자에게 대화의 소재를 제공한 듯이 발화번호54와 같이 일본인남성(JM03)은 나이와 외모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어 대화가 이어졌다.

[대화5] 침묵 후의 대화 : 자료C(03)

発話番号	発話者	会話内容	備考	学習者の発話分析
49	KF03	あ、そうですね。(沈黙9秒) じゃ、日本に帰られたら何年生ですか。	3分10秒	質問
50	JM03	また10月からY大学で勉強します。	Y:日本の大学名	
51	KF03	ああ、何年生に～		再質問
52	JM03	3年生		
53	KF03	あ、3年生、あ～若いですね。(笑い)		評価表現
54	JM03	(3秒後) みんなだいたい最初に会った人たちは／僕のこと見てふけてるってとしはにてるようにみて／(笑い)		
55	KF03	☆はい ☆[えー ☆あ、そうなんですか。		
		<中略>		

<학습자의 침묵 후 대화운영순서표>

대화4 : 질문→명확화요구→정보추가→평가표현대화5 : 질문→재질문→평가표현

4.4 자기개시와 정보제공(自己開示、情報提供)

대화6과 대화7은 한국인남성(KM)과 일본인여성(JM)의 대화이다. 대화6에서 한국인남성(KM07)이 5초간의 침묵 후, “ちょうど今頃、なんか北海道とか行つたらいいですね。”라고 자신의 의견을 자기개시하며 화제를 제시하였다(발화번호409). 일본인여성(JF07)이 홋카이도에 간적이 없다고 하자 한국인남성(KM07)은 “僕はもう会社の研修で北海道行って研修受けたことがあって”라고 취직(일)에 관한 화제를 한번 더 자기개시방법으로 제시하였다(발화번호412). 한국인 남성은 일(취

직)에 관해 자신의 경험을 자기개시함으로써 침묵현상을 극복할 수 있었다.

대화6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인남성(KM07)이 일본인여성(JF07)에게 질문을 하거나 명확화를 요구하거나하여 화제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남성(KM07)이 자신의 의견, 경험을 말하면 그것에 대해 청자인 일본인여성(JF07)이 질문하여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대화에서 한국인 남성의 자기개시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일본인 여성의 호응 또는 대화를 이어가려는 반응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특징은 한국인남성은 일본인여성의 질문에 답할 때, “食品会社だったんです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原料が北海道でたくさん取れてて、その原料研修、直接なんかこう作物を自分で取ったり”라고 이전 발화에 덧붙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발화번호415). 이와 같은 정보제공은 마치 일본인여성에게 질문할 여지를 주는 것처럼 보인다.

더불어 “楽しかったです。結構体力的につらかったですけど”와 같이 앞선 대화들에서 확인되었던 평가표현도 사용하여 화제를 전개하였다. 청자가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Kってとこです。(발화번호421)”라고 일본회사의 지역명(K)을 말하거나(스스로 먼저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화제를 전개시키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대화6] 침묵후의 대화: 자료G(07)

発話番号	発話者	会話内容	備考	学習者の発話分析
409	KM07	(沈黙5秒)ちょうど今頃、なんか北海道とか行ったらいいですね。	20分25秒	自己開示(意見)
410	JF07	そうなんですよ。[北海道、行ったことないですよ。]		
411	KM07	★涼しい		
412	KM07	僕はもう会社の研修で[北海道行って研修受けたことがあって]		自己開示(経験)
413	JF07	★あ～		
414	JF07	研修ですか？		
415	KM07	えっと、食品会社だったんですよ。そう、原料が北海道で[たくさん取れてて、その原料研修、/直接なんかこう作物を自分で/取ったり]		情報の付け加え
416	JF07	★うん～ ☆うん～ ☆なるほど		
417	JF07	えっ、楽しそうですね。		
418	KM07	楽し、[楽しかったです。つらかった、結構体力的につらかったん[ですけど、]		評価表現

419	JF07	★(笑い) ★あ、本当ですか?		
420	JF07	そうっか、研修…日本の会社		
421	KM07	<u>Kってとこです。</u>	K:地域名	情報提供
422	JF07	K?		
		<中略>		
428	KM08	(沈黙3秒)F、農場だったんですよ。	21分56秒 F:特産品	情報提供
429	JF08	うん~		
430	KM08	そこで、こう、一生見れないほどのFを###		
		<中略>		
460	JF08	枠? 枠が[あったんですか?		
461	KM08	<u>★枠ではないんですけど、普通の日本の同期と一緒に採用/されて</u>		情報提供
462	JF08	☆採用されたんですね。へ~~		
463	JF08	で、その仕事内容的[には		
		<中略>		
478	KM07	うん。		

대화7도 한국인남성(KM05)이 침묵 후 화제를 제시할 때 상대방에게 질문의 형태가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자기개시로 화제를 제시하고 있는 장면이다. 대화중 침묵이 생기자 한국인 남성학습자(KM05)는 발화번호71과 같이 연구참여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하며 침묵을 깨고 발화하였다. 하지만 발화번호76에서 알 수 있듯이 또 침묵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한국인 남성(KM05)은 “あ、なんか日本だと大学院、修士課程まで卒業してから病院で医療の仕事してる人が多いんですけど韓国ではほぼ好まれないんです。年、年取ったと思われて”라고 취직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여 화제를 제시하였다. 화제를 전개 할 때도 상대방에게 질문은 하지 않고 “別に、何ってうかあ~學歷はどうでもいいから若者がいいか”라고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며 대화를 진행해 갔다(발화번호80). 또한 평가표현(발화번호83)도 사용하여 대화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화7] 침묵 후의 대화 : 자료E(05)

発話番号	発話者	会話内容	備考	学習者の発話分析
71	KM05	(沈黙4秒) あ、自分の話ばかりして[すみません。なんか申し訳ないんです。なんかどんなふうに会話を進めたいのか全然聞いてなかったんです。		自己開示 (意見)
72	JF05	★いえ、大丈夫です。全然大丈夫なんで		

73	JF05	あ ははは(笑い) 自由でいいと思います。		
74	KM05	あ、なんか、30分ぐらいだと／自己評価自PR、まあ会社ではないか。／自己##ではないんですけど／会社では普通、だったら###に自己紹介、自己、志望動機、自己PRから／言ってくださいとか／言われるから。はい、わたくしは何大学から参りました。何々と申します。何々です。よろしく願います。／自己PRかな	###： 聞き取り不明	
76	KM05	(沈黙6秒) あ、なんか日本だと／大学院、修士課程まで卒業してから病院で医療～の仕事してる人が多いんですけど／韓国ではほぼ好まれないんです。／年、年取ったと思われて。	7分	自己開示 (意見)
77	JF05	☆はい ☆は～ ☆へー		
78	JF05	あ、若いほうが／やっぱり就職しやすいですね。		
79	KM05	☆え		
80	KM05	はい、別に、何っていうかあ～ <u>学歴はどうでもいいから／若者がいいか。。。</u>		自己開示 (意見)
81	JF05	☆うんー		
82	JF05	えー、そうなんですね。		
83	KM05	まあ、日本と似ているでしょう～／けど、 <u>若者とっても好きな国ですから。</u>		評価表現
84	JF05	はい、そうです。		
85	JF05	ははは(笑い) そうですね。あと新卒じゃ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のがある。		
86	KM05	☆え		
87	KM05	だからけっこう大変だったんですけど／去年一回日本の企業受かったんですけど去年は落ちて今年既卒として受かって／みたんですけど去年は時期が遅くて手遅れな企業が多くて[あんまり就職##できなくてまあ～今年説明会から早く3月から行ったのに既卒の方はキャリアの方に <u>行ってくださいと言われて。</u>		自己開示 (経験)
		<中略>		
95	JM05	(笑い)		

<학습자의 침묵 후 대화운영순서>
 대화6 : 자기개시→정보추가→평가표현→정보제공→정보제공...
 대화7 : 자기개시(의견)→자기개시(경험)→평가표현...

침묵이 없고やりとり가 많은 실제 대화에서는 <표5>와 같이 한쪽이 화제를 제시하면(발화번호96) 다른 한쪽이 발화번호100과 같이 질문을 하거나 반응을 보이고, 다시 원래 화자가 발화번호101과 같이 질문을 하는 등 상호 화제를 발전시켜 가는 모습이 자주 관찰된다.

<표5> 침묵이 없고やりとり가 활발한 대화의 예: 대화D(04)

発話番号	発話者	会話内容	備考
96	KF04	でも、日本ではなんかちゃんと自分の専門を勉強してる、て感じがするんですけど。まあ、私にとってはそうなんですけど。韓国のまあ、C学科だったらなんか自由な感じで、まあ、必須科目とかなくて、まあ###とかもなくまあ、ちょっと自由な感じなんですけど。 <u>韓国のD大学のCはどうですか。</u>	C:学科名 D:大学名 ###:聞き取り不明
97	JM04	Cは/2個しか授業取ってないからあんまりわかんないんですけど/多分、多分学科の/飲みとかあるらしくてあの、[少し上下関係も少しあったような感じはします。	
98	KF04	☆はい。☆はい、はい。★あ、そうですね。	
99	KF04	ちょっと問題になるのが韓国はまあ、先輩とかにちゃんと尊敬語、敬語を使わなきゃならないルールがあって、まあ、浪人して入った子も先輩に[敬語使わなきゃならない	7分46秒
100	JM04	<u>★同じ、同じ学年でも先輩になるんですか。</u>	
101	KF04	あ、学年じゃなくてまあ、年は同じなんですけどまあ、[一個上の先輩に対して敬語使わなきゃならないことがあってまあ、ちょっと上下関係が厳しいなって思ったんですけど。 <u>まあ、日本はどうですか。</u>	
102	JM04	★あ、それ。日本も同じような感じですよ。	
103	KF04	あ、そうですね。	
<中略>			

하지만 침묵 현상이 발생하면 어느 한쪽이 제시한 화제가 상대방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짧게 종결되어 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인 학습자가 어떻게 화제를 제시하고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지를 중심으로 침묵 후 학습자의 대화운영 방법을 살펴보았다.

<표6> 본고에서 확인된 침묵 후 학습자의 대화운영 방법

	질문	자기 개시	명확화 요구	평가 (감정)표현	확인 요구	의견 추가	정보 추가	재질문	정보 제공
여성 학습자	9	0	5	6	1	1	0	1	0
남성 학습자	0	6	0	2	0	0	2	0	3
합계	9	6	5	8	1	1	2	1	3

(숫자는 회수를 뜻함)

‘질문’은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주어 대화를 진행시키는 수단이 되고, ‘자기개

시'는 첫 대면 대화에서 상대방과 우호적으로 대화를 진행시키고 싶다는 공통의 목적 때문에 사용된다(奥山2003 : 67). 질문과 자기개시 모두 보다 나은 의사소통의 수단(Mckay2009 : 222)임을 본 연구 자료에서 한국인 학습자가 질문과 자기개시로 화제를 제시하여 침묵을 극복하고 있는 것을 통해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松田(2015:52)는 “남성은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 직접적 의사소통스타일을 사용하며 여성은 주변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직접적 의사소통은 피하고 상대방이 알아서(설명 없이) 대처해주는 의사소통스타일을 취한다”고 한바 있듯 남녀의 대화스타일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에 침묵 후 한국인 학습자의 남녀 특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수치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표6>의 평가(감정)표현의 수치가 많은 것을 통해 여성은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남성에 비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의 질문 횟수가 많은 것은 여성이 남성에게 발화기회를 주는 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은 남성이 리드하기 쉬운 화제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井出1999:25)”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여성학습자는 남성에 비해 명확화 요구를 침묵 후 자주 사용하여 상대방의 발화를 유도하였다. 명확화요구란 개방형질문(Open · Question)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지만(村上1997:150) 본 연구 자료에서 학습자는 “じゃ、何の分野の”와 같이 “何”이라는 의문사를 사용하였다. 또한 화자가 정확히 모르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질문(矢의 명칭, 일본에서 원류를 부르는 명칭과 비용)과 자신의 의견(矢의 크기와 무게에 대한 느낌, 특정대학 근처의 고시원은 비싸다는 의견)이 혼합된 형태로 명확화를 요구하였다.村上(1997:150)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명확화요구,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확인요구를 한다”고 진술한 바, 화자가 청자에게 명확화를 요구하면 청자는 화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때문에 청자의 발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침묵 후 제시된 화제로는 한국인 여성은 상대방의 과거의 경험, 한국인 남성은 자신의 의견과 경험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인남성학습자는 침묵 후 상대방에게 질문보다는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자기개시하는 형태로 대화를 진행하였고 상대방이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추가정보를 덧붙여 화제를 전개시키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5. 맺으며

본고는 접촉장면의 이성간의 첫 대면 대화를 연구대상으로 침묵 후 한국인 학습자가 침묵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 대화진행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인 학습자의 침묵 후 발화에 초점을 맞춰 정성적 분석을 시도한 결과 학습자가 사용한 침묵 후 대화운영방식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인 학습자는 일본인모어화자와의 첫 대면 대화에서 침묵이 발생했을 때 명확화요구, 확인요구, 감정표현, 질문 및 의견추가, 자기개시, 정보요구, 정보추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를 운영하였다.

본고의 연구 자료는 이성 간의 대화이기에 이성간의 대화운영방식에 차이점이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본고는 한국인 학습자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기에 본고의 분석에서 확인 가능한 한국인 남녀의 특징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 여성은 침묵 후 상대방에 대해 질문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인 남성은 상대방에게 질문보다는 자신의 의견이나 경험을 먼저 자기개시하는 방법으로 침묵 현상을 극복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 확인된 한국인 상급 학습자의 남녀의 침묵 후 대화진행 방식 차이는 본고의 데이터 수가 적고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은 점 등 향후 보완할 사항이 많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필자도 숙지하고 있다. 이에, 향후 연구 자료를 더 확보하여 분석을 보완해 가는 것을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이선옥(2016) 「한일 이성 간 첫 대면 대화의 화제에 관한 연구-한일 문화요소 및 성차요인을 중심으로」 『일본어교육연구』 36, 한국일어교육학회, pp.53-70.
- _____ (2017) 「한일 이성간 모어화자끼리의 첫 대면 대화 연구-화제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39,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pp.143-161.
- _____ (2018) 「첫 대면 대화의 화제 도입 방법에 관한 연구-한국인 상급 일본어 학습자와 일본어 모어화자의 이성 간 대화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79, 대한일어일문학회, pp.143-163.
- 박성현(2007) 『한국어 대화 화제 와 말차례 체계 (Vol.7)』 집문당 pp.1-356.
- 曹英南(2013) 「韓国語と日本語の割り込み発話の対照研究-疎の関係の男女の雑談会話をデータとして-」 『일본어문학』 59, 한국일본어문학회 pp.37-56.
- 井出祥子(1999) 『社会言語学』アルク pp.1-109

- 奥山洋子(2003) 「初対面のポライトネス・ストラテジーにおける韓日比較-大学生同士の会話資料をもとに」 『일본연구』 제17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pp.65-99.
- 堀このみ(2011) 「大学生男女の「沈黙」が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与える影響」 『東京女子大学言語文化研究』 20, pp.105-121.
- 松田哲(2015)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おける性差についての考察: 「車のエンジンがかからないの」を事例に」 流通経済大学スポーツ健康科学部紀要8, pp.49-54.
- 森本郁代(2013) 「会話の中の 「間」 と 「沈黙」 日本語学, 32(5), pp.49-62.
- 村上かおり(1997) 「日本語母語話者の「意味交渉」に非母語話者との接触経験が及ぼす影響:母語話者と非母語話者とのインターアクションにおいて」 『日本語教育論集』 7, 世界の日本語教育, pp.137-155.
- 柳田直美(2015) 『接触場面における母語話者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方略』 ココ出版
- 中井陽子(2012) 『インターアクション能力を育てる日本語の会話教育』 ひつじ書房 pp.1-452.
- Gail E. Myers ;Michele Tolela Myers, 임칠성 역 (1995) 『대인관계와 의사소통((The dynamics of human communication)』, 집문당.
- Herbert H Clark(1996) “Using langua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432.
- Matthew McKay, Martha Davis, Patrick Fanning(2009) “Messages: The communication skills book” : Raincoast Books. pp.1-368.

논문 투고 일자 : 2018. 10. 14.
논문 심사 일자 : 2018. 11. 07.
게재 확정 일자 : 2018. 11. 09.

 < 要旨 >

 初対面会話での沈黙克服事例に関する研究
 —韓国入上級日本語学習者の会話運営方法を中心に—

李善玉

本稿は、韓国入女性と日本人男性および韓国入男性と日本人女性の組合わせて韓日異性間の初対面会話を録音し、沈黙後の話題について学習者の立場から分析した研究である。研究対象者は韓国の首都圏在住20代の男女各14名(7ペア)で、各ペアごとの会話時間は35分であり、総会話時間は245分である。上級日本語学習者が沈黙後提示した話題はどんな話題であるか、どのように話題を展開し沈黙を乗り越えたかを事例を通じて分析し、韓国入男女の会話進行方法の違いを確認した。

分析の結果、沈黙後、韓国入女性は質問で話題を提示し、韓国入男性は自己開示で話題を提示し沈黙を乗り越えているのが分かった。韓国入女性が提示した話題は相手の過去の経験についてであり、韓国入男性が提示した話題は自分の意見、経験に関することであった。また話題を展開するときも、韓国入女性は明確化要求、確認要求、感情表現などを使って相手の発話を誘導し話題を展開していた反面、韓国入男性は相手に意見を聞くより自分の意見、経験を自己開示する形で話題を展開していた。性差によって話題導入と展開の仕方は少し異なったが沈黙後、話し手が使った「明確化要求、確認要求、相槌、情報の付け加え、評価表現、自己開示」などは相手の会話を支援する行為であると言える。沈黙後の韓国入男女の会話スタイルの差は少し確認できたが、事例を探って得た結果なので一般化はできないと思われる。しかしこのような結果が日本語教育で応用できると考えられる。

 A Study on the Cases of Overcoming Moments of Silence after First Conversation
 –Focusing on the Conversation Management of Korean Advanced Japanese
 Learners–

Lee, Seon-Ok

This study analyzed the topics after moments of silence after the first conversation between the pairs of a Korean woman and a Japanese man and the pairs of a Korean man and a Japanese woman. The differences in the way of continuing dialogue by Korean men and women learners were identified by analyzing which topic advanced Japanese learners suggested and how they overcame silence.

It has been identified that Korean women overcame silence by suggesting topics in the form of asking questions to Japanese men and Korean men overcame silence by suggesting topics in the form of talking about themselves. The topics suggested by Korean women were about the past experiences of the opponent and the topics suggested by Korean men were about one's own opinions and experiences. In addition, when unfolding topics, Korean women unfolded topics by inducing speech from the opponent after using 'demanding clarification, demanding identification, and expressing emotions (expressing evaluations)' whereas Korean men unfolded topics in the form of talking about their own opinions and experiences. This study identified the gender differences in suggesting and unfolding topics after moments of silence by Korean learners.